

호남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미래형 학사제도' 개편

'HOPE 다중트랙 교육과정' 도입
 학과·전공 중심→진로·미래 설계
 트랙·소전공 선택 실무역량 강화
 개방형 혁신 모델...취업 경쟁력 ↑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호남대학교가 2027학년도부터 개방형 교육혁신 모델인 'HOPE 다중트랙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호남대 제공〉

호남대가 AI 시대에 대비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제도를 개편한다.

1일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기존의 학과·전공 중심 체계를 넘어 학생 스스로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개방형 교육혁신 모델인 'HOPE 다중트랙 교육과정'을 도입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HOPE는 'Honam Open Path Education'의 약자로, 학생이 입학 후 자신의 전공을 탐색하고, 진로에 맞는 트랙과 실무역량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취업 경쟁력 향상을 돕는 학생 중심 진로설계 교육체계이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학과 중심 교육구조에서 벗어나 학생이 선택한 전공 이외 다양한 트랙을 넘나들며 트랙, 마이크로디그리(MD)를 선택하고 조합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도록 설계했다.

기존 전공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트랙제와

마이크로디그리(MD)를 도입해 산업현장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대는 AI 시대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한

다는 계획이다.

트랙은 특정 직무와 산업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한 교육과정이며, 마이크로디그리는 보다 세부적인 실무형 소전공 과정이다.

새로운 학사제도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입학→탐색→선택→확

장→완성' 구조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1학년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과 트랙을 탐색하고, 2학년에는 전공과 트랙을 선택하며, 3학년에는 복수 트랙과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진로역량을 확장하게 된다. 4학년에는 전공, 트랙, 비교과 활동, 현장실습 경험 등을 바탕

으로 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취업과 사회진출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분야의 2개 이상의 트랙과 마이크로디그리를 선택해 융합역량과 실무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전공 기반 외에 AI, 데이터, 콘텐츠, 상담, 복지, 디자인,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자신만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취업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된다.

더불어 교육실명제를 도입해 교수와 수업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학생의 수업 선택권도 강화한다. 학생들은 과목명뿐 아니라 교수의 수업 운영 방식과 교육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진로목표에 맞는 학습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호남대는 이번 학사제도 개편을 통해 '더 다채로운 전공, 더 세분화된 트랙, 더 확실해진 취업'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학생중심 교육혁신과 지역 기반 미래인재 양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AI융복합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대학 모델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박상철 총장은 "이번 학사제도 개편은 단순한 학과 통폐합이나 명칭 변경이 아닌 교육의 기준을 학과 중심에서 학생의 진로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적 변화"라며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연결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욱 기자

전남-광주 유아들 "완도 바다 함께 지켜요"

완도유치원·대촌중앙초병설유치원
 '생태 이음 프로젝트' 공동수업 진행

완도유치원과 광주 대촌중앙초병설유치원 유아들이 바다 생태계 중요성을 함께 배우는 '전남-광주 생태 이음 프로젝트' 공동수업을 했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완도 바다를 함께 지켜요'를 주제로 진행된 수업은 유아들이 역할극과 환경 노래, 생태 놀이 활동을 함께하며 바다 환경보호 실천 방법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200교실의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활용해 지역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협력 수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수업은 전남교육이 추진하는 '유아 200교실'의 지향점을 담아 운영됐다. '유아 200교실'은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유아의 주도성을 키우고, 연결과 확장을 통해 유치원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는 전남형 미래 교육 모델이다.

놀이와 디지털 기반 협력 수업을 결합해 지역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두 기관 유아들은 그동안 '전남-광주 생태이음 프로젝트' 활동을 이어왔다.

해조류 요리활동, 바다 플로깅, 환경보호 노래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생태 감수성을 기웠다.

또한 패들렛과 줌(zoom)을 활용해 두 지역의 환경보호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이번 공동수업에서는 완도유치원 유아들이 준비한 '완도 바다를 지키는 초록 영웅들' 역할극이 펼쳐졌다.

최근 완도유치원, 광주 대촌중앙초병설유치원 유아들이 '전남-광주 생태 이음 프로젝트' 공동수업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유아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아파하는 바다 생물들의 모습을 통해 해조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했다.

광주 유아들은 참여형 관객으로 함께하며 육지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제안하고, 함께 만든 환경노래를 부르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번 공동수업이 단순한 온라인 교류를 넘어 지역과 환경, 유아의 삶을 연결하는 수업이었다"며 "유아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생태환경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협력과 공감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이번 공동수업은 유아들이 놀이와 소통 속에서 환경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천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남교육은 지역과 지역,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는 미래형 유아교육을 확대해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역량을 함께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조선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선정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프로그램 운영

조선대 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 주관 '2026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사업의 광주 지역 거점 박물관으로 선정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운영하는 이동형 체험박물관 사업으로, 지역 어린이들이 전통문화와 민속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올해 주제는 '알록달록 네 가지 세상'이며, 전시와 함께 손수건·수세미 만들기 등 체험 활동과 인형극으로 구성됐다.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오는 24~28일 총 5회 운영된다.

조선대 박물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어린이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박물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천선형 조선대학교 박물관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대학 박물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시·군 선착순 모집★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